



## Bar attachment와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하악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 수복 증례

김성록\*, 조혜원, 동진근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일반적으로 총의치의 안정성과 유지력은 잘맞는 의치상과 적절히 연장된 의치상연에 의해 얻어진다. 하지만 악골이 심하게 흡수된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의치의 안정성과 유지력이 낮고 저작시 동통에 의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한다. 이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수복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할 경우에는 단단한 음식물의 저작이 용이하며, 치조점막의 문제도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며,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의 골의 양과 질 등의 해부학적 조건 때문에 제한된 숫자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피개의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의치상을 이용하여 안면형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 보철물보다 심미적이며, 장착과 철거가 용이하여 청결에 유리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양악에 가철성 국소의치를 장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잔존치 모두가 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거가 요구되었다. 잔존치

발거후 임플란트를 상악에 4개, 하악에 2개 식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시 임플란트를 상악에 4개, 하악에 3개 식립하였다. 식립된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미리 수정한 의치를 수술 당일 장착함 으로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임플란트가 골융합이 된 후, 상악에는 Bar attachment를 설계하였고 후방부에는 resilient type attachment인 ERA attachment를 추가하였다. 하악에는 전방부에 bar attachment를 설계하였고 후방부에 임시 임플란트는 제거하지 않고 O-ring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metal framework은 주모형상에서 바로 wax-up하고 주조하여 제작 하였다. 상악과 하악 모두 후방부에는 일반적인 총의치처럼 제작하여 조직 지지를 충분히 얻도록 하였으며 특히 상악의 경우에 구개부를 피개함 으로서 임플란트에 전달되는 과부하를 예방하고 의치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상악과 하악에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를 장착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